

상생뉴스



더 빠르고! 더 안전하고! 더 편리한!
Rail Network 실현

/ 발행인 강영일 / 편집인 신철수 / 기사문의 042)607-3085 / http://www.kr.or.kr /

호남고속철도 광주송정역사 2월 17일 사용개시!

호남본부(본부장 이현정)는 호남고속철도 광주 송정역사 건설을 완료하고 지난달 17일부터 영업을 개시했다. 광주송정역사는 2013년 6월 착공해 지난 1월 주요공사를 완료하고 지난달 17일 운영자인 코레일과 실제 이용자인 장애인 협회 등이 참여하는 이용자 점검까지 모두 마쳤다.



전라남도 서남권의 중심부에 위치한 광주 송정역은 12,875명이 이용 가능하도록 지상 4층 선상역사로 빛고을 광주이미지를 형상화한 연면적 4,858㎡ 규모의 초현대식 건물로 건설됐으며 지열을 이용한 냉난방과 태양광 발전 그리고 엘리베이터 6대와 에스컬레이터 14대의 승강설비를 갖췄다.

특히 본부는 역사 건설 시 코레일과 지자체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광주 송정역사 후면까지 선상연결통로를 연결해 철도로 양분된 동서지역간 편리한 이동과 장래 역사 후면 도심 개발시 접근성 개선 등 이용 편의성을 제고했다.

또한 신설 광주송정역사 내 체험형 종합전시관을 설치해 호남고속철도 이용 승객 및 광주송정역을 방문하는 유관기관, 해외철도 관계자들에게 호남고속철도의 건설과정 및 안전성 등 철도산업 전반을 홍보하는 대국민 홍보의 장으로도 활용 할 예정이다.

본부 관계자는 “오는 4월 호남고속철도가 개통하면 서울에서 광주송정까지 현재보다 66분 단축한 1시간 33분에 이용 가능함에 따라 수도권과의 접근성 향상으로 수송능력 증대 및 물류비용 절감과 함께 광주시에서 추진 중인 광주송정복합환승센터 건설도 한 층 더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행복한 일터, KR어린이집 개원

- 두 번째 직장어린이집 개원으로 육아부담 줄이GO 업무능률 높이GO -

경영지원실(실장 이명환)은 지난 2일 본사 사옥 2층에서 강영일 이사장과 윤정일 노동조합 위원장, 학부모 등 1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KR어린이집' 개원식을 시행했다.



기운영 중인 'KR어린이집'에 이어 두 번째 직장 어린이집을 개원한 것으로 이날 개원식을 시행한 어린이집은 기존 직장 동호회 사무실을 리모델링해 3개의 보육실, 영·유아용 화장실, 주방과 식당 (총면적170㎡) 등을 갖추고 오전 7시30분부터 밤 10시까지 운영해 직원들이 편하게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배려했다.

강영일 이사장은 개원사를 통해 “KR 어린이집 개원으로 직원들이 육아 스트레스 없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고 국가의 미래를 위협하는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일하는 여성들이 경력 단절 없이 더 많이 사회에 참여하는데 의미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경영지원실 관계자는 “사내 직장 어린이집 확대로 직원들의 업무능률 증진에 이바지하고 정부의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정책에도 부응하겠다”라고 전했다.

강원본부, 하도급사까지 '안전·청렴 교육' 확대 시행

- 원도급사 위주 교육에서 벗어나 찾아가는 현장교육으로 효과 up! -

강원본부는 지난달 24일, 25일 양일간 최일선 현장에서 근무하는 하도급 소장 등 협력사 직원 80여명을 대상으로 시공현장에서 2회(평창군:50여명, 제천시:30여명)에 걸쳐 '철도건설현장 하도급사 안전·청렴 특별교육'을 시행했다.

본부는 그 동안 원도급사의 현장소장·감리단장 위주의 주입식 교육에서 탈피해 최일선에 근무하고 있는 하도급사 까지 직접 전달될 수 있도록 사고사례, 품질실폐사례 및 청렴 교육을 시행했으며 교육에 참석한 임직원 모두 안전사고 예방 및 건강한 철도건설을 위한 각오를 다지는 한편, '안전·청렴 교육' 후에는 현장에서 위급상황 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외부강사를 초빙해 심폐소생술도 실습했다.

김 본부장은 “무엇보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열차운행 안전사고 및 추락, 전도, 낙하, 협착, 감전 등 사고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며 “교육에 참석한 직원 모두 청렴지킴이 역할을 충실히 해 국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안전한 철도를 함께 건설하자”고 전했다.

선로변 거주 청소년 112명에게 장학금 지급

- 철도변 형편이 어려운 청소년 대상... 연 9천여만원 지원 -

경영지원실(실장 이명환)은 지난달 25일 본사28층 다목적홀에서 전국의 선로변에 거주하는 소외·취약계층 아동·청소년 112명(이하 KR소년단)을 선정해 장학금 수여식을 갖고 올해 약 9천만원의 지원을 하기로 했다.

경영노무처는 이날 행사에서 KR소년단 112명 중 학생대표 7명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했으며 대학 진학자 2명에게는 입학격려금으로 각1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며 사회 첫발을 내딛는 청소년들을 격려했다.

KR소년단은 연간 7천여만원의 장학금을 받게 되며 경영노무처는 철도문화체험을 비롯해 어린이날, 크리스마스 및 추석 명절에도 청소년들을 지원할 계획이다.

강영일 이사장은 “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지원할 수 있어 기쁘고 학생들이 사회의 일원으로 바르게 성장해 나가길 바란다”며 “공단은 미래의 꿈이며 희망인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꾸준한 지원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영지원실은 2010년부터 전국 선로변에 거주하는 소년소녀가장 등 소외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어린이재단의 추천을 받아 매년 100~120명가량의 KR소년단을 구성해 장학금 지급, 교복 및 학용품 지원, 명절 나눔, 철도문화체험 행사 등을 전개하는 'KR소년단 희망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2015년도 KR소년단 희망프로젝트>

◆ KR소년단 : 전국의 철도변 소외·취약계층청소년 112명

구분	합계	대전충청	서울경기	영남	호남	강원
2015년	112명	44명	23명	20명	16명	9명

* KR소년단 : 초·중·고등학생까지 철도변 소외·취약계층 아동·청소년
* 대상자 : 어린이재단 추천

◆ 지원내용 : 연간 약 9천6백만원
- 장학금 지급(인당 월 5~10만원, 연 7,020만원)
- 교복 및 학용품 지급
- 가정의달(어린이날)/철도문화체험/김장/크리스마스 나눔 등